

아시아, OCC 가격 상승
이라크전쟁 위협 영향

이라크전쟁의 위협에 의해 아시아에서 OCC의 가격이 상승 중이며 다른 나머지 grade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국과 대만바이어들은 전쟁발발에 따른 공급 문제를 염려, 앞다투어 재고량을 늘리고 있다.

만약 이라크전이 발생할 경우, 선박들이 수에즈운하를 피해 항로를 변경해야 하므로 운임이 인상돼 유럽으로부터 고지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OCC는 US\$1백15~1백25/MT CIF로부터 US\$1백30~1백35/MT CIF로, 유럽산 OCC는 US\$5/MT 오른 US\$1백5~1백10/MT

CIF, 일본산 OCC는 US\$95~1백/MT CIF에서 크게 오른 US\$1백17~1백20/MT CIF에 거러되고 있다.

미국산 ONP는 US\$1백25~1백40/MT CIF, 유럽산 ONP는 US\$1백10~1백20/MT CIF로 모두 변동이 없다. 공급자들은 US\$5~10/MT의 가격인상을 시도중이나, 구매자측의 반발이 커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미국, 펄프가격 상승 대세
하반기 하락 예상

유럽의 펄프업체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단행된 펄프가격 인상에 이어, 이번 달 1일에 단행된 추가인상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할 것이며, 이번 가격상승도 공급자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2, 3월에는 지난 1월보다 수요가 약하다는 점도 변수이다. 미국도 NBSK의 정가가 U\$20/MT오른 U\$500/MT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미국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으로의 수출가는 U\$10/MT 오른 U\$4백20~4백30/MT였다.

한편, International Paper(IP)는 이번달 1일부터 마켓펄프의 가격을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U\$40/MT 인상키로 계획해, 유럽에서는 NBSK의 가격을 U\$5백20/MT로, 미국에서는 U\$5백40/MT로 각각 올릴 전망이다. IP는 이미 2월 1일을 기점으로 U\$20~30/MT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Domtar도 NBSK의 가격을 3월 1일부터 U\$40/MT 인상한 U\$5백40/MT에 공급하겠다고 미국 바이어들에게 공고했다.

러, 노보시비르스크 물류 중심지 발돋움
지리적 이점 작용해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물류 업체 Tablogix사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대형 물류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Tablogix사는 서구 대형 업체들과 접촉해 문의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류중심지로

서의 노보시비르스크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노보시비르스크는 5년전의 모스크바 상황과 비슷하며 이제 막 도약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blogix사는 이미 시베리아 최초로 서구 스탠더드의 물류창고를 건설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평가해 금년 봄 1만㎡의 물류창고를 서구식으로 보수해 개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차로 건설한 Tablogix의 현지 창고는 75% 가량을 식품 자이언트인 Nestle가 사용하고 있다. Nestle는 알타이 지방 Barnaul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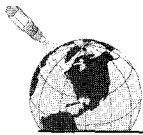
노보시비르스크에는 펩시콜라, 코카콜라, Mars, P&G 등 2백여 서구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등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PMC의 추산에 의하면 노보시비르스크에 A, B급 창고가 20만~30만㎡가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거의 없다고 한다.

노보시비르스크는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및 도로의 중심지로 시베리아의 허브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인 모스크바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보시비르스크에도 향후 투자가 몰려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따라 Tablogix사는 노보시비르스크가 조만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추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노보시비르스크 창고를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페인트 VOC 함량 대폭 규제 2007년부터 50% 감소 제안

유럽위원회(EC)는 지난 해 12월 중순 장식용 페인트와 바니쉬 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을 2007년부터 매년 약 50%씩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유럽환경부의 승인이 남아있는 이 제안은 최초로 전 유럽에 페인트, 바니쉬, 자동차 마감제 내 용제 함량 상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함량 감소가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산업계는 적용할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단계는 2007년부터 적용되며 두 번째는 2010년부터이다.

첫 단계에서 장식용 페인트 내 용제 함량은 수성 프라이머(water-borne primers)의 경우 50g/l의 허용한계가 주어지며 몇몇 특수한 용제형 프라이머(solvent-borne primer)의 경우는 7백50g/l가 최대 허용치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장식용 페인트 하나만 해도 매년 28만 톤의 VOC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상한을 더욱 확실하게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자동차용 마감제에 대해서는 오직 한 단계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이 제안이 매년 1백8~1백57백만 유로의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두 번째 단계 후에는 대기질의 개선으로 인한 이익이 매년

5백80백만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

유럽의 페인트 산업계는 기꺼이 VOC를 줄일 것이지만 이 제한은 시행하기에 너무 과격하다고 페인트산업협회 CEPE의 대변인은 말했다.

예를 들어 내부/외부 마감 용제접착페인트(solvent-bonded paint)의 용제 함량 허용치로 위원회는 3백g/l를 제안한데 비해 CEPE는 4백g/l를 제시했다.

대변인은 위원회가 제안한 수치는 불가능한 도전이며 시행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CEPE는 또한 업체들, 특히 중소형 업체들은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제품들의 VOC 함량을 줄이는 것은 새로운 연구와 시설투자가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CEPE는 그 비용이 EC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미 2001년의 요령(directive)에 따라 각 국가의 2010년도 VOC 방출 상한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유럽연합의 총 VOC 배출 상한은 연간 6.5백만 톤이다.

중국, 환경보호페인트 시장전망 밝아 회수 및 재활용 가능해

현재 중국의 건축도료 연간 생산량은 1백30만톤을 상회해 미국, 일본 다음의 세계 3대 건축도료 생산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건설업 발전속도에 비추어 볼 때



2005년 중국의 연간 건축도료 생산량은 1백80만톤, 2015년에는 3백만톤에 달하며 외장 장식 응용률은 6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북경 올림픽조직위원회 전문가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 건설은 건축재료가 다음 세 가지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건축기업이 제공하는 올림픽 회의장과 경기장 재료는 환경보호재료로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선진적인 전자재를 올림픽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셋째, 방음, 에너지 절약재료의 연구·개발을 중시하여 미래의 올림픽 선수촌은 이들 재료를 대량 사용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북경은 향후 6년간 2천8백억 위안을 투자하게 되는 바, 이중 전자재와 밀접히 연관되는 부분으로는 지하철, 경전철, 고속도로, 공항 부속시설에 9백억위안, 올림픽 회의장과 경기장 시설에 1백40억위안, 향후 5년간 기존의 9백여㎡ 위험가옥에 대한 개조 등이 있다. 도료가 전체 건축공사 예산에서 10%를 차지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비추어 볼 때 북경 올림픽관련 도료시장은 2백80억위안에 달한다.

최근 중국은 해외로부터 30여개의 건축도료 생산라인을 도입해 중국의 도료업계 구조조정과 품질의 제고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의 권위 있는 검사기관에 따르면 각종 지표에서 중국산 페인트 품질은 수입제품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北京納米科技有限公司가 곧 출시하

게 되는 내후성(耐候性) 안료, 노화방지 콜로이드(Colloid)는 오염에 견디고 항균, 색이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며 이미 수도체육관에 적용한 이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철강구조물의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올림픽 회의장과 경기장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철강구조와 배합된 방화재료는 도료밖에 없으며 이들 도료는 방화효과 또는 미관에서 볼 때 모두 수입페인트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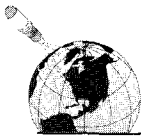
북경 수도공항 확장건축시 철강구조 방화처리 는 전부 수입된 방화 신형재료를 이용했다.

EU, 식품 광고 규제 강화 건강 증진식품 문구 라벨사용 금지

EU 집행위가 식품 라벨링이나 광고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 사용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EU 집행위가 마련중인 식품 광고 규제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이 “건강에 전반적으로 좋다”, “집중력이 강화된다”, “인성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와 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의 문구를 광고나 라벨에 포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사나 보건전문가의 추천이나 조언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무지방”, “저지방”, “고섬유질” 그리고



“light 식품”에 대한 EU 차원의 정의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과 라벨에 건강관련 문구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다농, 스위스의 네슬레, 미국의 겔로그사와 같은 식품 회사들은 물론이고 광고회사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 제안은 4월초에 집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인데, 집행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된다 하더라도 EU 의회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아무리 빨라도 2004년말 이전에는 발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유럽식음료업계 단체인 CIAA는 집행위가 추진중인 동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비닐봉투 제조업체 중국 이전 계획 비닐,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에 직면한 대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은 금년말 공장을 중국 본토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만의 많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왔다.

굿 플레그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대만 최대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환경규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자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만의 석유화학협회에 소속된 이 업체들은 중국에서 석유화학산업으로 잘 알려진 취안저우(泉州) 향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취안저우 당국과 공장 건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석유화학협회는 작년 취안저우 하이테크 공업개발단지의 관리국과 1백 헥타르의 공장부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Chou Ming-hui 회장은 밝혔다.

먼저 33헥타르의 부지에 업체들은 금년 6월부터 공장 건립을 시작할 수 있다.

취안저우 시당국은 공업단지를 저가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임대하는 등 다른 옵션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Chou 회장은 밝혔다.

대만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만도 1만개에 달하며, 이곳에는 10만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대만 석유화학협회의 회원도 2천1백43 업체에 이른다. Chou 회장은 적어도 2백개 업체들이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식품상표 법규 6월 시행 영양소 구성비 표시

말레이시아의 식품가공 업계는 6월부터 적용되는 새 법규에 따라 제조식품에 의무적으로 식품 상표를 부착해야하며, 일정 식품류에 대해서



는 영양소 구성비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소 표시를 해야하는 제품으로는 빵, 낙농 제품, 통조림 식품, 과일 주스, 샐러드드레싱, 마요네즈와 음료수 등이 해당되며 제품의 영양소는 칼로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 4가지로 표시돼야 한다. 새 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가공업계에 이미 2000년 8월부터 공고했었다.

제조업자들이 제품표시는 과학적 사실에 의거해야하는데, 저(低) 콜레스테롤 식품의 경우 과학적 실험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장에는 이미 저지방, 저 콜레스테롤 식품 등이 나와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영양소 표시는 제품 판촉을 위주로 한 것이며 제대로 된 영양학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있어 유효성에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상표 위의 영양소 표시는 영양소 함유정도와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새 법규는 UN 식품 및 농업기구와 세계보건 기구(WHO)의 산하기관인 식품품질과 안전규정에 관한 국제기구인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권장에 의거한 것이다.

**폴란드, 포장 기계류 시장 낙관적
기술투자 급증, 생산기지 설치 활발해**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던 폴란드 상품포장용 기계류 시장은 2000년에는 경기침

체의 영향으로 25% 가량 축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폴란드 상품 포장 기계류의 전망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01년 폴란드의 상품포장 기계류의 수입은 14% 감소했지만 2002년에는 약 5%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 포장 기계류의 최대 소비자는 주로 음료 및 제과를 제조하는 식품가공 산업 부문이다.

최근 식품가공 산업 부문의 기술투자가 급증하고 외국 대형 기업들에 의한 생산기지 설치도 줄을 잇고 있다.

폴란드에서 상품 포장용 기계류 수요는 대부분 수입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독일포장기계류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가 동기계류의 수입규모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어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 성장율의 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최근 포장기계류 시장도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이 여전히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80% 이상이 EU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 동 기계류 수입이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폴란드 포장 기계류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부문으로 남아 있다.

관계자는 폴란드 포장기계 업계의 유망품목으로 PET병 및 유리병 용 액체투입 기계, 요거트나 우유 등 유제품 포장 기계, 제과용 밀봉 포장 기계, 완제품 대용량 포장 기계를 꼽았다. [K]